

국내 찬술불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한국불교전서’ 1·4권 전산화 2005년까지 총 12권 마무리

동국대 전자불전연구, 사기류 전산화도 추진

신라 원축 스님의 <반야심경전>에서부터 구한말 보경 스님의 <엄불요문과해>에 이르기까지 국내 찬술 불서가 모두 인터넷으로 제공된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불전연구소)는 20일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발표회를 열고, 총 12권의 <한국불교전서> 중에서, 먼저 전산화 한 1권(신라편), 4권(고려편)을 공개했다.

<한국불교전서>는 26년에 걸친 작업 끝에 동국대출판부가 내놓은 총서로, 신라시대부터 구한말까지의 강백 1백 49명의 현존 저술 2백 61종을 집대성하고 있다. 따라서 불전연구소의 디지털 <한국불교전서>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한국의 불서들을 검색·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21세기 불교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작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전연구소가 이번에 공개한 전산본 1·4권에는, 한국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원효·지눌·의천 스님의 저술들이 포함되어 있어, 불교학계뿐만 아니라 종교학·철학·역사학계 등 인접 학계의 연구에까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산본 1·4권은 불전연구소의 홈페이지(ebti.dongguk.ac.kr)에서 제공되는 ‘검색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열람할 수 있다. 검색 시스템은 ‘키워드’ 검색 외에도 ‘등록된 키워드 목록으로 찾기’, ‘등록된 페이지 목록으로 찾기’, ‘등록된 제목 목록

으로 찾기’ 등을 제공한다. 검색 결과물은 인쇄하거나 다운로드(가져오기)할 수 있다.

불전연구소는 전산본 1·4권을 퍼내기까지, 지난해 7월부터 <한국불교전서>를 화상으로 입력해 이미지 파일로 전환하고, 문자인식 프로그램으로 한자를 인식하고, 탈자와 오자를 교정하고, 이체자를 정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밟았다. 특히 컴퓨터에서 제공하지 않는 ‘누락한자’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일본에서 개발한 ‘문자경’ 폰트 체계를 도입했다. 일본의 문자경은 9만여 개의 한자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상에서 한자 입력은 ‘유니코드체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체계로는 2만여 자



20일 오전 11시 동국대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발표회 모습.

(字)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불서(佛書) 전산화에는 적합하지 않다. 고려대장경의 전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려대장경연구소의 경우, 독자적인 한자 체계를 개발·사용하고 있다.

보광 스님은 “전 세계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국불교전서>를 텍스트로 삼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 이번 작업의 가장 큰 의의”라며 “한자를 한글·영어 번역하고, 한자·해설 사진을 제공하는 등의 후속 작업과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하는 전산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전연구소는 <한국불교전서> 1·4권의 전산화에 이어, 2005년까지 나머지 총서의 전산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불전연구소는 총서에서 누락된 사기류의 전산화와 도서관·역경원·정각원을 연결하는 ‘동국불교네트워크’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회에 참석한 총림(고려대장경연구소장) 스님은 “불서 전산화의 시작은 기술자들의 몫이지만, 가치 있는 디지털 <한국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교학자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세계종교연구소

다종교 사회인 미국. 이 곳의 종교들이 서로 빈목하기보다는 대화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스님과 신부가 함께 운영하는 세계종교연구소(Institute For World Religions)를 클릭해 보자.

세계종교연구소는 94년 미국에서 열린 국제종교 회의장에서 중국 불교계의 삼장 법사인 휴와 스님과 로마 가톨릭의 유인 추기경이 불교와 가톨릭이 함께 운영하는 종교연구소의 필요성을 공감한 것이, 미국 버클리에 이 연구소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휴와 스님은 중국의 선불교 선사 중에서 ‘웨이양’ 계열의 스님으로서 1962년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10만 명의 일반 회원이 가입해 있는 ‘불교도-불교도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해 이끌어가고 있다. 불교도-불교도연합은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주로 동아시아 지역의 불교 포교를 위해 사찰과 학교 그리고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종교연구소는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대 부설 종교학연구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아시아의 토착 종교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스님·신부 운영 종교 화합 주도

데, 이를 연구하는 학자와 연구소 등이 밀집해 있는 샌프란시스코 베이(Bay) 지역의 종교 관련 센터와도 학문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있어 새로운 차원의 종교간의 연구를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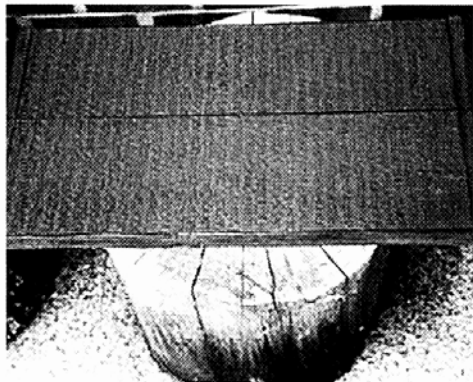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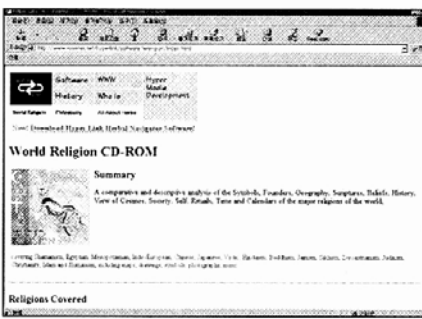
세계종교연구소는 현재 종교적 정신적 지도자와 과학·기술 분야의 이혼가와의 세미나 개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공개토론회와 같은 일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는 △美 대학생 명상 지도 △종교·과학계의 연석회의의 △역사문화사 수행 프로그램 보급 △삼장 수행 보급 △남방 불교계 후원 △불교 경전 감독 등이 있다.

이외에도 세계종교연구소는 유대교, 불교, 기독교와의 정규 대화 시간을 진행하고, 이 사이트에 ‘종교간 대화’라는 메뉴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신부와 남방 불교계의 비구스님 2명과 ‘정신적 전통에 대한 도전’을 주제로 종교지도자들의 대화를 열고 종교간 화합의 길을 모색했다.

또 세계 비폭력 단체인 ‘아힘사’와 스간디와 비폭력의 원칙 △유기체의 새로운 시대 △영성(靈性)과 성(性) △두뇌, 마음, 양심 △창조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유대교의 신비주의와 현대 물리학과의 대화 등과 같은 주제의 강연회를 개최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opia.com)

△http://www.drba.org/iwr_e.htm



백운선사 창건추정 절터 발견

직지찾기운동본부, 용인서 수구다라니 목판도 찾아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초안을 작성한 백운선사(고려·1298~1374)가 창건한 것으로 보이는 절터와 이 절에서 판각한 수구다라니 목판이 발견됐다.

정주시민회 직지찾기운동본부(공동대표 김광식·장병순)는 19일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쌍령산 일대에서 절터로 추정되는 건물지를 발견했으며, 이 터가 백운선사가 창건한 쌍운암이라고 주장했다. 또 쌍운암에서 판각된 수구다라니 목판

을 이 마을 주민 오시준(66)씨가 소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지운동본부는 <용주사본말사지>에 ‘백운 경향이 쌍운암을 창건했다’는 기록이 전하는 절과 이번에 찾아낸 목판을 근거로 이 절터가 백운선사가 창건한 쌍운암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쌍운암터는 쌍령산 정상에서 200여m 떨어진 남쪽 능선에서 발견됐으며, 옛 사찰에서 주로 출토되는 당초문양의 암막새 기와를 비롯해 청자조각과 주춧돌로 보이는 유물도 함께 발견됐다.

또 오씨가 소장하고 있는 수구다라니 목판에서 ‘정해운사월 양지 쌍운산 쌍운암 장판(丁亥潤四月 陽智 雙巒山 雙雲菴)’이란 간기가 판각돼 있어 이 목판이 쌍운암에서 보관하던 것임을 보여준다. 직지찾기운동본부는 ‘정해운사월’이란 간기와 ‘입진왜란 때 소실됐다’는 <용주사본말사지> 기록을 볼 때 판각시기는 1407~1587년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나옹선사(1320~1376), 보우국사(1301~1381)와 함께 고려말 선승으로 유명한 백운선사의 행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김상현 교수(사학과)는 “확실한 사료적 입증없이 쌍운암을 백운선사와 연결짓는 건 설부터 판단이다. 또 기간만으로는 정확한 목판 제작연대를 알 수 없는 만큼 향후 정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opia.com)

“간화선, 사회의 꿈 살필때”

종호스님 강원연합토론회서 주장



“간화선이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으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의 제반 문제들을 살피고 이를 앞장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종호(동국대 교수) 스님이 강원연합 공개학술토론회에서 ‘간화선의 역사와 수행법’을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해 주목된다.

종호 스님에 따르면 현대의 선사들은 모두 개인적인 수행에만 안주하고 있어, 당(唐) 오대의 조사들이 사회 개혁에 참여하거나 정신적 의지처가 되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선불교의 주요 경전인 <단경>에서는 수행자를 ‘구도세인(求道世人)’이라 하고 있고, <좌선>에서는 수행자에게 ‘서도종생(棲道衆生)’을 목표로 삼으라 하고 있다. 깨달음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십우도 역시

마지막 ‘입전수수(入前垂手)’에서 중생의 삶을 바로 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가 앓고 있는 환경 오염, 문화 지체, 가치관 혼란 등 제 문제에 대해, 한국의 선불교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구체적인 가르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에서 종호 스님은 “어떤 사상이든 현실에서 존재가치를 가지려면 적극적인 선도(先導)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오늘날 간화선에 제기되는 비판을 무시하기보다는 무엇에 대한 비판이고 요구인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보조사상연구 월례발표

보조사상연구원(실장 인경)은 제31차 월례발표회를 22일 오후 2시 30분 법선사 2층 불일불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유재선(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박사가 ‘비로다(virodha)와 불교의 할나설’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02)733-5311

정영호박사 퇴임논총

한국의 석조미술 연구에 뚜렷한 업적을 나간 석보 정영호 박사의 <정년 퇴임논총>(해안 권)이 발간됐다. 1천

쪽이 넘는 정 박사의 논총은 황수영 전 동국대 총장의 축사와 40여 편의 방대한 논문이 미술사와 역사·고고부의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실려 있다.

정보가공요원 모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한상진) 민족문화추진팀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CD 타이틀로 발간하는 작업에 참여할 정보 가공요원을 모집한다. 업무 내용은 ‘백과사전 원고 데이터의 가공’과 ‘도판 설명문 작성 및 자료 정리’로, 각 분야 석사과정 수료 이상인 자 또는 대졸자로서 관련 업무 경험자면 지원할 수 있다. (031)709-2459

헤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 733-3900 6263-3900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스포츠 조선과 함께 하는 실크로드 불교 문화탐방 여행 8일 ₩1,349,000. 일 정: 서울-서안 양관-유원-투루관-우루무치-서안-서울. 포함사항: 국제선항공료, 국내선항공료, 비자비용, 공항세, 보험, 특급호텔 안내인, 전문차량, 일행상의 전식. 출발일: 7/28, 8/4, 11/18. 5천년 중국 문화의 고도 - 서안 - 불교 벽화예술의 정수 - 둔황 - 황량한 타클라마칸 사막의 오아시스 - 우루무치. ※단체로 신청 하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실크로드 (Silkroad) 長安에서...쿤지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 길을 따라 동, 서양을 넘나들던 구법승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인 쿤지랍까지... 전문 안내인과 함께 다녀오십시오. 일 정: [21박 22일]서안-난주-가혹관-둔황-유원-투루관-카슈가르-타즈쿠르간-쿤자랍고개(버스)-우루무치(열차)-서안. 포함사항: 항공료, 비자, 숙소, 현지안내인, 도시간의 이동, 보상한도 1억원 여행자 보험. 출발일: 7/31, 8/7 (10명이상 출발).

Tibet 금단의大地 티벳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m 넘니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보고 땅임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야! 時空을 넘니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일 정: 서울-네팔,카트만두-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자유일정)... 포함사항: 국제선항공료(아시아항공+네팔항공:1년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카트만두 1박. 출발일: 매주 화,목,토 개별출발. JEEP 타고 티벳평원을 횡단 ₩1,990,000. 일 정: 카트만두-라사-장제-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포함사항: 항공료,숙박(조식포함),Jeep(4인탑승),중국비자,티벳여행허가서, 사원입장료,영어가이드,보험. 출발일: 매주 목요일(4명 이상 -최소규모 출발합니다) *영국,독일,프랑스,한국 연합상품으로 Jeep 이용조건.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여행에서 선보이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반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일만지 순례 8대성지 순례.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항공+네팔항공:1년 항공권). 일 정: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살리(대림정사,아쇼카 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터)-사해트 마헤트(사위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포함사항: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인,전용차량. 출발일: 15명이상 수시 출발.